



2018년 29주년 한인봉제인 축제의 장 성대히 열려

비상 코가!!!

재인니한인봉제협회(회장:박재환)는 지난 26일 짜까랑 자바베카cc에서 2018년 제 29주년 한인봉제인 축제의 장을 열었다.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Vol. 11





2018년 29주년 한인봉제인 축제의 장 성대히 열려 2018년 다시코가에서 2019년 비상하는 코가가 될것

비상 코가!!!

재인니한인봉제협회(회장: 박재환)는 지난 26일 짜카랑 자바베카cc에서 2018년 제 29주년 한인봉제인 축제의 장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1부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2부 자바팔레스 호텔에서 만찬을 열었다.

지난해 28주년 행사시 우천으로 골프대회를 다 마치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에는 쾌청하고 맑은 가을날씨로 마치고 한국의 가을 운동회 같은 분위기의 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송창근 재인니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신기업 재인니 한인회 명예고문,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전조영공사를 비롯해 많은 내외빈 인사와 코가의 회원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골프대회에는 김현식사장의 출신원으로 이노바 기장의 상품을 가지게 되는 등 예년과 달리 풍성하고 활기찬 대회로 이어졌다.

이어 2부행사는 자바 팔레스 호텔 대 연회장에서 있었으며 코가의 TFT(팀장:이규백)에

서 코가의 과거와 현재를 섬세하게 분석해 코가의 미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이번 프리젠테이션에서 이규백(태평양)팀장은 2부 행사에 참석한 모든 회원사와 내외빈 인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코가의 미래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희망, 비전등의 청사진을 보였다.

10년후 우리 코가는 한인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코가의 10년 미래비전을 선보였고 회원사의 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상생과 협력, 신뢰의 기반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봉제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미션으로 지난해 다시코가, 차기년도 비상코가, 그리고 2020년 정상코가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리고 코가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잔칫상을 차리는 것으로 귀결했으며 충만한 열정

과 상생의 기반, 봉제인의 자부심으로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봉제협회가 될 것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박재환 재인니 봉제협회 회장은 최근 인도네시아 체감경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지만 우리 봉제기업인들이 함께 손잡고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 했으며 라고 축하사에서 말했으며 송창근 재인니 상공회의소 회장은 격려사에서 음식은 나를 위해 먹고 옷은 남을 위해 입는다라고 말하며 봉제인의 근본에는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는 만큼 뜻있는 자리였다고 말하며 코가의 새로운 모습에 감탄과 감동의 여운을 쉽게 지우지 못하고 매주 토요일 코참회의에 코가의 TFT를 초대해 코가의 비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타 분야의 경영자에게도 소개하기를 요청했다.

이번 행사가 추석연휴기간



▲재 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박재환 회장

이러서 그럴까? 웬지 풍성함에 참석자 모두의 넉넉한 마음과 여유, 그리고 동심과 공감으로 모두가 하나된 분위기가 었다.

29주년 한인봉제인 축제의 장 행사는 단지 하나의 행사로 마친게 아니라 우리 봉제인에게 많은 기대와 비전을 시사하게 하는 멋있고 뜻있는 행사로 치루어 졌다는 평가로 항상 힘들다는 봉제산업에 새로운 산돌바람이 불려와 미래의 인도네시아 한인 봉제 기업 모두에 항상 즐겁고 희망찬 새바람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인도네시아 대선 레이스 본격화...공식 선거운동 개막

조꼬위, 대권 놓고 수하르토 전 사위와 5년만에 재대결 최대 화두는 경제·민생... 유권자 40% 차지 젊은층 공략도 변수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2일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57·일명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날 밤 선거관리위원회(KPU)에서 기호 1번을 배정받고 재선 캠페인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 저항이 있지만 우리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 “우리에게만 인도네시아의 발전이란 단 한 개의 선택지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원내 1당과 2당인 투쟁민주당(PDI-P)과 골카르당 등 9개 정당의 지지를 받아 차기 대선 후보로 추대됐다.

부통령 후보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구 울레마 협의회(MUI) 의장이었던 종교 지도자 마루프 아민(75)이 지명됐다.

야권은 이에 맞서 2014년 대선에서 조꼬위 당시 PDI-P 후보에게 석패했던 뿌라보워 수비안토(67) 대인도네시아 운동당(그린드라 당) 총재를 맞수로 내세웠다.

선거관리위는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통치했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뿌라보워 총재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산디아가 우노(49) 전 자카르타 부지사에게는 기호 2번을 부여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23일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은 내



▲2018년 9월 21일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오른쪽)과 뿌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 당) 총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대선 후보 기호 1번과 2번을 배정받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년 4월 17일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며, 약 1억8천7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조꼬위 대통령의 지지율은

52%로 뿌라보워 총재(30%)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선이 다가오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줄고 있다고 분석

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경제와 민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꼬위 대통령은 2014년 대선 당시 연평균 7% 경제성장률을 공약했지만, 이후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 5%대에 그쳤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통화위기로 촉발된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산하면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뿌라보워 진영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낙장 대응을 해 피해가 커졌다면서 벌써 조꼬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권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

지도 관심사다.

군 장성 출신인 뿌라보워 총재는 약점으로 꼽히는 젊은 유권자층을 공략하기 위해 정계의 ‘젊은 피’로 주목받는 산디아가 전 부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골랐다.

비무슬림적 인물이란 음해에 시달려 온 조꼬위 대통령은 반대로 보수성향이 강한 이슬람 지도자인 아민 전 의장을 러닝메이트로 발탁했지만, 지난달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오토바이를 타고 입장하는 등 젊은 층에 어필하려는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은 이달 방한했을 때는 K팝 인기스타인 슈퍼주니어(SJ) 그룹을 만나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산디아가 전 부지사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슈퍼주니어 인기 멤버와 뿌라보워 총재, 본인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나란히 올리고 “패션 스타일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인도네시아 정부, 외국 구호단체들에게 “즉시 출국” 명령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술라웨시 섬에서 활동하는 외국 구호단체 대원들에게 “즉시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9일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F)은 이날 “해외 비정부기구(NGO)들은 즉시 대원들을 철수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의 팀 코스텔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매우 이상한’ 발표를 했다면서, 인도네시아 구호 대원들과 자원

봉사들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외국 지원 인력이 없어질 경우 구호활동에 차질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외국 기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그렇지 못하다. (구호 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 (철수 요구는)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 9월 28일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이후 외국의 구호물품을 받아들이는데도 낙장을 부려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호주 국제개발위원회의 전

클랜시는 현재 술라웨시에서 소수의 외국 구호요원들만 활동 허가를 받았으며, 그나마도 기술적 지원 업무에 국한돼 있다고 밝혔다.

BNPF가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는 8일 현재 1,944명이다. 하지만 실종자가 5,000여명에 이르



는 것으로 추정돼,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전망이다. 부상자는 885명으로 집계됐다.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SWF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국경일 기념 행사 개최



▲ 국경일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김창범 대사(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 김창범) 주최로 개천절과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 행사가 10월 2일 (화) 저녁 자카르타 웨스틴(Westin) 호텔에서 개최됐다.

본 행사에는 에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산업부장관, 우스

만 삽타 오당(Oesman Sapta Odang) 상원의장, 파들리 존(Fadli Zon) 하원 수석부의장, 하니프 다키리(Hanif Dhakiri) 노동부 장관, 부디 카르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 교통부 장관, 소프얀 잘릴(Sofyan Djallil) 농지공간계획부 장관, 하디

안 수민타앗마자(Hadiyan Sumintaatmadja) 국방부 사무차관 등 고위 인사들과 인도네시아 주재 각국 대사부부 및 외교단, 한인사회 인사가 참석했다.

본 행사는 '미래를 함께 여는 우정의 동반자' 라는 주제로, 지난달 28일 중부술라웨시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김창범 대사의 인사말에 이어 에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산업부 장관의 답사와 케익 커팅 및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공연 등이 진행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어린이로 구성된 어린이합창단은 애국가와 인도네시아 국가를 부르고 인도네시아 민요와 우리 밀양아리랑을 합창하며 본 행

사 주제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주인도네시아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원에서 마련한 한국문화 체험장이 준비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직접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 보도록 하여 한국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미국산 면화 수요 두 배 증가 예상

미국에 본사를 둔 비영리 재단인 미국면화협회(CCI)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에서 미국산 면화 수요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중산층의 대두와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오염 문제가 면의 수요를 끌어 올릴 전망이다이라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미국산 면과 면제품의 수출 촉진을 다루는 CCI의 브루스 전무 이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미국산 면화 수입량은 베트남, 중국, 터키에 이어 4 번째로 많다.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API)의 에이드 회장은 지난 7월 방미 당시, 미국의 주요 면화 수출 3개사와 무역 확대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에이드 회장은 "미국산 면화 수입을 확대하여 미국의 섬유 제품 수출을 확대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의 섬유·섬유 제품(TPT)의 무역 수지는 23억 1,000만 달러의 흑자였다. 전년 동기의 흑자 25억 달러에서 감소한 결과다.

정부, 달러→루피아 환전 기업 법인세 인하 혜택 검토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 달러 자금을 루피아로 환전하는 기업에 법인 세율 인하를 적용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락세에 있는 루피아 환율을 안정화와 경상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정책이 달러를 루피아 환전으로 확대되어

지 정부 내에서 계속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 표준 법인세율은 25%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권 운용 이익에 부과하는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운용 이익에 소요되는 세율은 현재 채권 소유자가 인도네시아인 경우 15%, 외국인인 경우가 20%이다.

채권 운용 이익의 세율은 재무부 재정정책기구(BKF)의 수야하실 나자라 장관도 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루피아의 대미 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약 9% 하락했다. 루피아 약세 등을 배경으로 2분기(4~6월) 경상 수지는 80억

2,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 수지 적자의 국내 총생산(GDP) 비율은 전분기의 2.2%에서 3.0%로 확대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부가가치세(VAT)가 0% 적용되는 서비스 수출 분야에 IT, 연구 개발, 전문 서비스, 무역 등 6개 분야를 추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VAT 비과세 분야를 기존의 3개 분야에서 9개 분야로 확대해 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출 증가와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 해소를 노린다.

재무부, 수출 VAT 면제에 서비스 부문 6개 추가 고려

현지 언론 끈판 9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재정정책기구(BKF) 산하 국가세입정책센터(PKPN)의 루스탐 조세·세외 수입 부장은 "6개 분야를 추가하는 재무장관령의 개정 초안은 완성하고 올해 4분기(10~12월)에 공포할 전망이다" 라고 말했다. IT 분야에는 응용 프로그램과 콘텐츠 프로그래밍, 웹



개발 등이 포함되고, 전문 서비스 분야에는 법률과 회계, 재무 감사, 세무 등이 그 대상이 된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영세, 중소기업자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정부령 23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23 Tahun 2018)

영세, 중소기업자에 대한 최종 분리과세 개정안이 2018년 6월 8일 정부령 23호 발표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전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정부령 46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46 Tahun 2013)에 대한 개정안으로 이전에는 직전 년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1%의 세금만 납부함으로써 Final Tax 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었는데 개정안에는 세율이 종전 1%에서 0.5%로 인하되었고 적용 기간에 대한 혜택이 추가되었다.

- 제 2조
- (1) 일정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의 납세자가 수취 또는 획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최종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2) 위 (1)의 최종 분리과세 세율은 0.5%이다.
- (3) 위 (1)의 사업소득에 다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a. 개인납세자가 자유직업 서비스로부터 수취 또는 획득하는 소득
 - b. 국외에서 수취 또는 획득된 소득으로 국외에서 과세되거나 납부된 경우
 - c. 다른 조세 법령에 따라 이미 최종 분리과세된 소득
 - d.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4) 위 (3)의 자유직업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Arsitek), 의사, 컨설턴트, 공증인 (notaris), 부동산중개사 (PPAT), 감정평가사 (Penilai), 보험계리사 (Aktuaris) 등 전문직 사업자
 - b. 연주가, 사회자, 가수, 코미디언, 영화 배우, 드라마 배우, 광고 배우, 연출가, 영화 감독, 사진

- 모델, 모델, 무용수
 - c. 체육인
 - d. 고문, 교사, 코치, 강사
 - e. 작사, 작곡가, 연구사, 통역사
 - f. 광고 에이전트
 - g. 프로젝트 감독, 관리자
 - h. 브로커
 - l. 물품 행사 (petugas penjual barang dagangan)
 - j. 보험 에이전트
 - k. 다단계 마케팅 (distributor perusahaan pemasaran berjenjang) 또는 직접 판매 및 기타 유사한 활동
- 제 3조
- (1) 상기 2(1)의 일정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 최종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 납세자란
- a. 개인납세자
 - b. 법인납세자(조합, 파트너십, 주식회사 등)
1. 과세기간에 48억 루피아 이하의 소득을 수취 또는 획득한 납세자를 말한다.
- (2) 다음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a.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7조 (1)a, 제17조 (2a), 또는 제31E의 세율 적용을 선택한 경우
 - b. 전문성을 가진 개인납세자 몇몇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형태의 법인납세자가 상기 2(4)의 자유직업 서비스와 같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c. 법인납세자가 다음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 1. 소득세법 제31A조
 - 2. 과세소득 계산 및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Nomor 94 Tahun 2010 및 그 개정, 대체 규정
 - d. 고정사업장인 납세자
- (3) 위 (2)a의 납세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위 (3)의 납세자는 이후 과세연도에 동 정부령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5) 위 (3)의 통보서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 4조
- (1) 상기 3(1)의 일정 매출액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1년간의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으로부터의 발생한 매출액 총액에 의해 결정되고 지점 매출액을 포함함
- (2) 개인납세자가 부부관계이면
- a. 서면으로써 재산과 소득을 구분
 - b. 부인이 독자적으로 세금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 소득세법 8조 2항 b와 c 로 남편과 부인의 매출액을 합하여야 한다.

- 제 5조
- (1) 상기 2(1)의 소득세 최종 분리과세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 a. 개인납세자 최장 7년
 - b. 법인납세자(조합, 파트너십 등) 최장 4년
 - c. 법인납세자(주식회사) 최장 3년
- (2) 위 (1)의 적용 기간은
- a. 동 정부령 시행 이후 등록한 납세자는 납세자 등록 과세연도부터
 - b. 동 정부령 시행 이전 등록한 납세자는 동 정부령이 시행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된다.

- 제 6조
- (1) 매 월의 사업소득 매출액이 소득세 최종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된다.
- (2)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은 사업으로부터 수취되거나 획득된 대가 및 현금 등의 가액을 말하며 매출할인, 현금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할인을 차감하기 전 금액
- (3) 납부할 세액은 0.5%에 위 (1)의 과세표준을 곱하여 계산한다.

- 제 7조
- (1) 요건을 충족했던 납세자가 진행 중인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 (2) 위 납세자가 이후 과세연도에 수취 또는 획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7조 (1)a, 제17조 (2a), 또는 제31E조의 세율이 적용된다.

- 제 8조
- (1) 상기 6(3)의 납부할 세액은 다음



김재훈의 세무상식

김재훈 대표

- 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 a. 납세자 자진납부
 - b.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 (2) 위 (1)a의 자진납부는 매월 이루어져야 한다.
- (3) 위 (1)b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와의 매 거래 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4) 위 자진납부 및 원천징수 방법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 9조
- (1) 납세자가 상기 8(1)b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와 거래하는 경우 납세자는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국세청장은 위 (1)에 근거하여 해당 납세자가 동 정부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증명서를 발행한다.
- (3) 위 (1), (2)의 신청서 제출과 증명서 발급 방법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 10조
- (1) 2018 과세연도 초부터 동 정부령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종전 규정인 Peraturan Pemerintah Nomor 46 Tahun 2013에 따른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동 정부령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 1. 과세연도 초부터 동 정부령 시행 전까지 수취

- 되거나 획득된 상기 2(1)의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매출액에 1%의 세율을 적용
2. 동 정부령 시행 시부터 2018 과세연도 말까지 수취되거나 획득된 상기 2(1)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매출액에 0.5%의 세율을 적용
3. 2019 과세연도 시작부터 수취되거나 획득된 상기 2(1)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 17조 (1)a, 제17조 (2a), 또는 제 31E조의 세율을 적용
- 제 11조
- 종전 규정인 Peraturan Pemerintah Nomor 46 Tahun 2013은 동 정부령 시행과 함께 폐지한다.
- 제 12조
- 동 정부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약력

PT. BNG Consulting 대표
 재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사무국 사무차장
 중소기업 진흥공단 인니세무 자문
 Toray Group (TPJ) 세무자문 위원
 인도네시아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Tax Lawyer)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Best Quality | Fast Delivery

Products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i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IMF 총재 “미·중 무역분쟁 완화해야...무역체계 개선 안 돼” “美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신흥국 자본유출 계속될 것”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 기금(IMF) 총재는 11일 미국과 중국에 무역분쟁 수위를 차츰 낮추면서 기존 무역체계를 합리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은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추징 관세로 인한 악영향이 여타 국가로 “과급”(contagion)되는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고한 주변국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와 관련해 자신이 조언할 수 있는 것



▲ 2018년 10월 11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11 [사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은 “(무역분쟁) 완화와 (기존 무역) 체계의 수정, (기존 무역 체계를) 깨뜨리지 말 것” 등 세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해외국가의 첨단 기술을 빼내고 외국 기업에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한다는 미국의 불만과 관련해선 세계 무역기구(WTO)가 해당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

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적절한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중앙은행이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연준의 손을 들어줬다.

라가르드 총재는 “성장률이 훨씬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동시에 실업률이 극히 낮은 경제에서는 명백히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이 실수하고 있다. 연준은 너무 긴축적이다. 난 연준이 미쳤다(gone crazy)고 본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다만, 라가르드 총재는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은 신흥국 시장의 자본유출과 불안정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자본유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정확히 같은 보폭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역시 이런 현상을 가속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신흥시장과 일부 선진시장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가피한 자본유출을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올해 3~8월 사이 중국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8% 가까이 급락한 데 대해선 달러화 강세가 주된 원인이라면서, 기준환율 산정을 위한 통화 바스켓 대비 위안화 가치는 그만큼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DHL 인도네시아, 내년에 배송료 평균 5% 인상 발표

합성섬유 대기업 아시아 퍼시픽 파이버스, 내년에 PTA 생산 4년 만에 재개



인도네시아 합성 섬유업체 아시아 퍼시픽 파이버스(PT Asia Pacific Fibers)는 내년 1월부터 폴리에스테르 등의 원료가 되는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생산을 4년 만에 재개

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PTA 가격 하락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2015년 이후부터 PTA 생산을 중단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

시아 5일자 보도에 따르면 PTA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34만톤이다. 아시아 퍼시픽 파이버스의 대변인은 “지난 1년간 PTA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며 생산 재개 이유를 밝혔다.

아시아 퍼시픽 파이버스의 2018년 1~6월 결산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2억 2,850만 달러였다. 순이익이 1,111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순손실 864만 달러에서 흑자 전환했다. 올해 연간 매출 목표는 전년 대비 10~12% 증가하는 것이다.

국제우편 물류 기업 도이치 포스트 DHL의 인도네시아 법인 DHL 익스프레스 인도네시아(PT DHL Express Indonesia)는 21일 내년 1월 1일부터 배송료를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요금 개정의 일환으로 배송 망을 확충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현지 언론 콤포스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DHL은 동부 자카르타 뿔로가동 공단 내에 총 445억 루피아를 투입해 건설한 서비스 센터를 이달 중순부터 시작했다. 면적은 1,800평방미터, 화물 취급 능력은 연간 31만 4,000개에 달



한다. 급증하는 국제화물 수요에 대응한다.

DHL은 올해 1월에도 배송료를 인상했다. 인상폭은 무게 300킬로그램 짐이 평균 4.9%, 300킬로미터를 초과하면 평균 15% 이상이였다.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더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신남방특위 “정책 핵심주체는 기업” ... 아세안·인도 진출 독려

현지 진출기업 임원진 만나 新시장 개척 지원 ... 기업 간담회 정례화



▲ <신남방정책특별위 기업간담회> 4일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신남방국가 진출기업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0.4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4일 오전 아세안·인도 지역에 진출한 국내 주요 기업 임원들을 만나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한화, 두산중공업, CJ, GS리테일, 현대자동차, LG 경제연구원, 롯데지주, SK 등의 해외사업·마케팅 등 관련 부문 임원들이 참석했다.

신남방특위는 이들로부터 아세안·인도 지역 활동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남방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인사말에서 사람(People), 공동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를 중심으로 아세안·인도와 협력을 강화,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신남방정책을 원활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남방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주체는 우리 기업”이라며 “기업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새로 아세안·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과의 소통창구도 마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지속해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세안·인도 지역에 구축되어있는 우리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의 해외기업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신남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

했다. 김 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정책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 차량조립 및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부품의 무관세화를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기업 역시 이같은 부품관세장벽 해소와 더불어 ▲ 현지 투자 시 금융조달의 어려움 해결 ▲ 낙후된 유통망 개선 등을 건의하며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신남방특위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가급적 연내에 제1차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D 프린팅 의류 컬렉션

웨어러블 아이템들 실용적 활용도 제시



미국에서 최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여성 의류 컬렉션이 선보여졌다.

디자이너 줄리아 데이비는 이달 초 개최된 뉴욕 패션주간 중 ‘패션과 기술의 만남 (2018 Fashion Meets Technology)’ 이벤트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제조된 웨어러블 여성 의류 컬렉션을 소개했다.

이는 패션 분야에 3D 프린팅 기술 시대를 열기 위한 파일럿 컬렉션으로 선보여졌다. 미국에서 이러한 종류의 풀 컬렉션이 선보여진 것은 처음 이었다고 한다.

기존에 선보여진 3D 프린팅 의류는 유연성이 없는 하드 매테리얼을 사용하고 지나치게 정교한 디자인 등으로 인해 런웨이나 포토슛 용도 외로는 크게 의미가 없었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컬렉션은 웨어러블한 의류들을 선보이며 실용성 있는 3D 프린팅 기술의 패션 활용도를 제시했다.

줄리아 데이비의 컬렉션은

대용량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별의 의류를 2~4개 피스로 프린트해 제작한다.

‘Liberation Collection’은 성계의 가시털 모양을 흉내내 이를 3D 패턴으로 데코한 실크 오간자 패브릭 ‘프레질리티 드레스,’ 산호초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의 ‘미니 레이스 스커트’가 포함된다. 미니 레이스 스커트는 최초의 3D 프린트 레이스 스커트라고 한다.

이 밖에 ‘폴카닷 엑소스켈리톤 드레스,’ ‘파라미터 코랄플리드 드레스,’ ‘파라미터 스킨 슈트,’ ‘퓨어 네이처 슈트,’ 등 독특한 섬유 재질의 특성을 지닌 의류들이 선보여졌다.

주인니대사관

“재난지역, 자원봉사자 방문 자제”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가 덮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중부술라웨시 주 빨루 지역 등 재난 현장에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9일 ‘대사관 안전 공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빨루 등 재난지역에 외국인의 탐색구조팀, 의료팀 및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자

원봉사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다.

대사관은 “지진과 쓰나미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빨루 지역 방문 시 전염병 감염이 우려되고, 본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지진 피해가 우려된다”며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



▲ 강진과 쓰나미로 무너진 인도네시아 중부술라웨시 주 빨루 시 8층 호텔.

구호대 파견도 제안했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물자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도네시아 재난 당국에 따르면 8일 오전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944명이다. 하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주민이 수천 명에 이르는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AUTO SPREADER MACHINE
All Digitalized Z Series
Z-320
SE MYEONG PRECISION CO., LTD.
www.semyeong.co.kr

세명정밀 자동 연단기

- 유일한 디지털 방식의 자동 연단기
- 레이온, 스판 yd 당중량 100그램 짜 얇은 원단도 연단이 가능한 유일한 연단기
- 디지털 방식으로 우븐, 니트, 스판 원단 무장력 로자동연단
- 봉제, 가방, 신발, 자동차시트, 공장 설치사용

SHRINKING AND FORMING MACHINE
All Digitalized Z Series
Z-240
SE MYEONG PRECISION CO., LTD.
www.semyeong.co.kr

세명정밀 원단 수축율 교정기계

- 스판, 레이온 원단 롤, 절 별 LOT차에 의한 일 정하지 않은 수축율 개선하여 재단 봉제시 일 관성 보장
- 디지털 방식으로 바이어, 스타일, 원단 LOT 수축율 자동 입력시스템
- 온도 속도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 제어됨

세명정밀 전기보일러

세명정밀 전기보일러

- 용량별 3K,5K,10K,20K
- 성과품질, A/S 보장
- 전기보일러의 HEATER 나뉘수질에 관계없이 장기간 사용가능 품질 보장

PERFECT BOILER

PERFECT BOILER

- 매연이 없는 친환경 보일러
- 중폭 시스템으로 적은 연료 폐기물로 고온 고압유지
-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설치 사용
- 소각, 기름, 가스, 열매보일러 스킴링, 소각기름 가스 열매보일러, 수리, 보수 스템배관공사...재단테이블 제작설치

P.T PERDANA ABADI SUSKES

세명정밀 (SEMYEONG PRECISION) INDONESIA SOLE AGENT
퍼펙트보일러 (WINNER TEK KOREA) INDONESIA SOLE AGENT
JL. BOULEVARD BARAT RAYA RUKO INKOPAL F53 TEL : 021 4585 9110
설치상담 및 a/s : 085 882 701 823 lee jong chan

EMAIL : gildong27@gmail.com



비상! KOGA OPEN G



KOGA GOLF FESTIVAL



인도네시아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10)

매력적인 아젠다 아이템 인삼, 차와 커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게재된 인삼의 음료대용 커피 및 차 음료로 인기를 불러 모으고 있다고 전하면서, “비즈니스기회” 라는 기사의 면을 특별히 활용하여 한국, 중국, 미국산인삼에 대한 효능과 특효에 대해 특별게재한 내용을 일부 발췌해 보았다. PT. AbadiCahaya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인삼 커피시장 공략이후 지금 중동지역 및 중국, 유럽시장에 까지

회사였으나, 지금은 인삼커피를 100%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고 현재는 적은 물량의 인삼을 한국에서 수입 인도네시아 Robusta 커피와 희석, 그 양을 얼마의 비율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하여간 이 회사의 판매량은 예상외로 대단한 것임에 틀림 없다고, 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이 회사내에서 생산되는 50%의 절반이상이 자보따백을 중

그리고 그에 대한 함유량은 홍삼 성분 함유량은 고유의 특효 사포닌 성분외에 Ginsenosides 31 종, 항산화물질 : Mito(노화억제물질)이 높고, 산성 다당체 (암세포의 독성 물질 생성 억제작용이 있음) 높음, 노화 억제 (화산화 활성화)활성이 강함, 알코올 해독 작용높음, 성장 발육효과 조절작용이 강함, 혈당 강화작용이 강하다는 연구 조사결과가 나왔다.

Phenolics, Acidis Poly, PinacosPanax Dio/PanaxTriol)을 일반적으로 비교해 볼 때 한국산 인삼중에서도 홍삼에 대한 효능과 효과가 타 인삼에 비해 더욱 높은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앞으로는 인삼, 커피외에도 인삼김치, 인삼라면, 인삼죽, 인삼빵등 각종 식품제품군에 인삼에 대한 홍보브랜드의 가치가 상품 마케팅의 판매가치로 매우 폭넓게 활용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있다.

생산지에 따른 커피의종류

전 세계 인류의 기호식품으로 발전한 커피는 과연 몇개국에서 생산되고 있을까요?

얼핏 우리는 브라질을 필두로 콜롬비아등 몇 개국에서만 생산 될 것같이 생각되나 실제로는 품종이나 질 양의 차이가 있을뿐 커피 생산국은 의외로 많은 50여개국입니다. 지구상에는 적도와 평행하게 북위 25 도에 북회귀선, 남의 25도 위도에 남회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에 지구를 일주하는 환상지대에 위치한 50 여개국에서 커피가 생산되며 이 지대를 커피군(Coffe Zone)또는 커피벨트(Coffe Belt)라 부릅니다. 이들 나라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약 30%이상을 브라질에서 생산하며 따라서 브라질의 작황 여하에 따라 국제시세가 좌우된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 커피전에 속하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커피속 (coffea)에는 약 40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인삼커피를 일반 인삼이 아닌 “Hi Red Ginseng Korea” 를 주 원재료로 하는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회사측은 인삼의 주 원료의 100%는 모두 한국에서 수입하고있고, 커피는 인도네시아 국내산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다단계 판매의 대명사라 할수있는 CN의 경우에도 인삼커피를 판매 대박을 터트리고 있고 현재에도 PUR 리브 고평물 앞에 위치하고 있는 본사에 가면 전문 인삼 커피매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인삼 커피가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다고 밝혔다. 초기 이 회사는 한국의 음료를 직접 수입 판매 해 오던 전문 판매

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인도네시아 전체시장 그리고 중동시장, 중국, 유럽시장에 이르기까지 그 수출영역을 계속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마케팅이사는 말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오너사장은 홍삼에 대한 효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고, 우선 홍삼은 사람의 체질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믿고 신뢰 할 수 있는 건강 음료라고 전했다.

1. 체질을 가리는 인삼, 체질에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한 인삼
2. 홍삼의 힘 - 암 예방 탁월
3. 홍삼, 두뇌 발달효과
4. R-gl 뇌 기능 활성화한다.
5.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홍삼

그외 홍삼에 대한 효능으로는 간장 보호작용, 중금속 제독작용, 당뇨병에 대한 효과, 동맥 경화 고혈압에 대한 효과, 항 피로 및 항 스트레스 효과, 암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태중박사의 홍삼과 인삼의 저서에 실려 있는바 있다.

인삼이 밝혀지는 시기는 중국의 고 서적에서 지금으로부터 Qian Long 왕시절부터 그에 대한 탁월한 효능 및 효염이 이미 알려진 바있고, “Imperial Ginseng” 중국의 창바이산으로부터 발견됐다고 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삼은 약종의 명약으로 어떤 제약보다 뛰어나다는 평을 받아오게 되면서, 약중에 명약, 약중에 왕이라고 불리웠다고 전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었으며, 주로 일반 서민층이 아닌 왕궁에서 주로 사용 해 왔던 약제로 더욱 유명하다고 전했다. Qing 시대에 Qian Long 왕은 역대 왕들 중에서도 제일 건강하고 원기 왕성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것이 바로 인삼의 특효효과에서 비롯되었다고 서적에 실려있다고 전했다. 이는 결과적으로인삼은 일반 약으로서가 아닌 건강식품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 중국, 미국산 인삼과 그 약효 및 능 (Poly acetylene, Poly

여가지종의 커피종류가 있으나 그중 아라비카종 (Coffea Arabica), 로부스타종(C.Robusta), 리베리카종 (C.Liberica) 등 3가지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것을 삼원종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아라비카종이 약 70%, 로부스타종이 27-28%, 나머지 2-3%가 리베리카종이나 이리베리카종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합니다.

아라비카

(Coffea Arabica : Arabica Coffee) 원산지가 에티오피아인 아라비카는 해발 500-1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생산되며, 로부스타와 배전두의 모양이 비슷하긴 하지만 잎의 모양과 색깔, 꽃등에서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는 데 생두의 모양은 평평하고 길이가 길며 가운데 고랑이 굽어있습니다.

부스타종이 발견 되기전까지는 대부분이 아라비카종이었지만 현재는 전세계 산출량의 약 80%를 점유합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과테말라, 이디오피아, 하와이, 코스타리카등이며 대부분의 커피 재배지에서 생산됩니다.

아라비카종 원두는 로부스타종에 비하여 단맛, 신맛, 감칠맛, 향이 뛰어난 가격이 더 비쌉니다. 아라비카종 거피의 함량은 1-1.7% 정도되고, 로부스타는 2-4.5%정도입니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라비카종 커피는 부드럽고 향기가 좋고 쓴맛과 자극성이 적으며 카페인 함량이 로부스타종보다 적다.



KITAS / KITAP / IMTA SILVER VISA (DI ATAS 55 TAHUN)

저희 오롬 컨설팅은 KOGA회원업체 전문 비자 키타스 수속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한국대사관 및 인니 노동청 옆건물에 위치해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20년의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 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Staff Orom 2018

노동청 Surveyor 대사관

Gedung Surveyor Indonesia Mezzanine - PT. OROM 19thFloor - PT. Doowang

품종	생산량비율	맛의특징	산지별브랜드	
에머랄드마운틴	1%미만	깊고그윽하고달콤한 맛	콜롬비아	
블루마운틴	1%미만	달콤한맛, 조화로운 맛	자마이카	
컬럼비아슈프레모	5%	원숙한감칠맛	콜롬비아	
코나	5%	산뜻한신맛	하와이	
콜롬비아마일드	10%	감칠맛, 약한신맛	콜롬비아엑셀소	
비콜롬비아 마일드아라비카	20-30%	신맛과단맛의수반 커피	과테말라	
			에멘	모카
			멕시코	알토라,
				마라고지프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머카
코스타리카				
브라질아라비카	30%	쓴맛, 신맛, 진한향	브라질	브라질,산토스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로부스타	20-30%	강한쓴맛, 독특한향	인도네시아	자바, 수마트라만델링
			아이보리코스트	
			앙골라	

로부스타 (Coffee Robusta: Wild Congo Coffee)

원산지는 아프리카콩으로써 잎과 나무의 키가 아라비카종보다 크지만 열매는 리베리카종이나 아라비카종보다 작습니다. 또한 30도 이상의 온도에 7-8일정도 견딜 수 있어 아라비카종보다 기생충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편입니다. 인도네시아, 앙골라, 우간다등지에서 재배되는 로부스타종의 원두는 아라비카종과 달리 불룩하고 둥글며 흠이 곧 고화색빛이 또는 푸른색을 띠니다.

로부스타종은 전세계 생산량의 20-30%를 차지하지만 아라비카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많으며 쓴맛이 강하고 향이 부족하여 스트레이트 커피로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재배하여 인스턴트 커피의 주 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리베리카 (Coffee Liberia: Liberia Coffee)



리베리카종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가 원산지인 품종인데 재배역사는 아라비카종보다 훨씬 짧습니다. 꽃, 잎, 열매의 크기는 아라비카나 로부스타보다 크고 내병성적응성이 뛰어나 재배하기 쉬우며 저지대에서 자랍니다. 재배지역이 리베리아, 수리남, 가나등인 리베리카종은 일부 유럽으로 수출되지만 대개 자국소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베리카종은 일부 유럽으로 수출되지만 대개 자국소비에 한정 그칩니다. 리베리카종은 아라비카종보다 향미가 떨어지고 쓴맛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그러나, 리베리카는 거의 생산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아라비카에서 분류된 마일드 (Mild)와 브라질 (Brazil), 로부스타 (Robusta)로 분리 합니다.

마일드: 에멘의 모카커피를 비롯,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 베네주엘라에서 채택
 - 브라질 :세계제일의 산출량 (세계 총생산의 약 1/3)을 자랑하는 품종으로 원두모양은 원형, 타원형이며, 부드럽고 신맛이 강하다. 주로 배합기초로 사용되며, No.2~No.8 까지 등급을 매겨 출하하고있다.
- 맛에 의한 커피의 분류.
신맛 : 모카, 킬리만자로, 코스타리카, 멕시코
단맛 : 컬럼비아, 과테말라, 멕시코, 온두라스
쓴맛 : 자바로부스타
감칠맛 : 컬럼비아, 과테말라, 멕시코, 킬리만자로
향기 : 모카, 콜롬비아과테말라 등의 각각의 맛을 내고있고, 인도네시아산 커피의 경우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이 대표적이고 각지

역마다 특상품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마트라 아찌의 가요커피, 메단의 만델링커피, 솔라 웨씨 또라자커피, 발리의 킨따마니 커피, 자와의 자바커피, 람퐁의 루왁커피, 파푸아커피등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유명브랜드의 커피가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Coffee on the Run, 다이렉 커피숍 인도네시아 유통업종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고있는 유통업종에는 패스트푸드 음식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음식류 사업에 있어서 일반음식이나 음료등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직접 빨리 서빙할 수 있는 간단하고 편리한 음식점 (피당 패스트푸드 음식의 예)및 음료 업체들이 최근들어 자카르타 시내내교통이 혼잡하고 비즈니스 성황의 하나로 간단하고 편리한 젊은 life style 의 뜨고있는 기류중의 하나이다.

음식에 있어서는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널드 그리고 음료 업체로는 스타벅스를 들 수있겠다. 이들 2 업체에 대한 인도네시아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있으며, 특히 이들업체들은 프랜차이즈화하여 인도네시아 전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중견 대기업들이다.

많은사람들이 이들 업체내의 프랜차이즈를 요구하고 있으나, 워낙 덩치가 큰 그룹들이 손을대고 있어 웬만한 중소기업은 속을 달수도 없으며, 더욱이 개인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낼정도로 이들 대기업에 대한 독과점 프랜차이즈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공존 중소기업 및 영세업을 보호하는 차원인 맥락이라고 보면 아주 쉽게 이해 할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대기업이 손을 대고있는 틈새시장의 문을 열고 소자본을 들여서,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시설의 커피 직배달숍이 간이 구멍가게(Warong)처럼 만들어가 회사내의 건물 및공공장소등에 설치 제2의 틈새시장에서 아주 독특한 재미를 보고있는 업체가 있다.

특특 튀는 젊은 아이디어가 소자본의 소호의 작은 커피숍을 오픈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형할인점이나 프랜차이즈화하지 않고서도 작은자본과 협소한 장소를통하여 직배달 할수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Coffee on the Run", "WarongKapaApi" 을 통해 고객이 주문 즉시 배달하는 초스피드 시스템을 활용 선택어 느긋해서나 쉽게 오픈할수 있는 매력력을 지니고 있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의 분주하고 바쁜 도심지의 중심에서 틈새 비즈니스시장으로 성장할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아젠다 사업의 하나라고 추천했다.

*봉제 관련 코가지를 통해 왁짜직결 웃음 보따리 비즈니스 기회를 엿보는 자카르타속 인도네시아속의 자연과 산, 즉자연자원을 이용할수 있는 틈새 비즈니스장의 기회를 이번호에서는 코가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다시코가! 아닌비상코가를 위한 회원사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한Inovas새로운 비전의 이야기 보따리의 틈새 비즈니스 시장을 열어보았다.

감사합니다.

학력
 WNI 자카르타대학 졸업
 U 대학 대학원 인류학 석사졸업
 PTK 경찰 대학원 2년과정 수료
 UN 국립 이슬람 대학교 박사 졸업

경력
 현 국회 보좌관 / 현 UNUA 대학교수
 상공회의소 대외협력 국장
 봉제협의회 대외협력 부회장
 교육, 문화, 전문 강의 전도사
 인적자원 네트워크 컨설팅

알리, 안선근

SystemEver | 시스템에버 - Cloud ERP

담당 직원이 자주 바뀔니까?

업무 프로세스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Visual-K!
인수인계 걱정마세요.

20여년 동안 ERP를 구축한 **솔아이티**와 1200여 기업의 노하우가 담긴 **SystemEver**가 함께 합니다.

Daily 업무

마감업무

결산업무

신규업무

변경업무

Contact: PT. SIT Global Systems
 TP : 62-21-720-4640 HP : 0811-149-586 E-Mail : phd@g-sit.com
 HomePage : www.g-sit.com Kakao : PHD9999
 Grand Wijaya Center Block F41 Lt.3 No.11 Kebayoran Baru Jakarta

“달러-원 더 될 수 있다” ... 대세 하락 전망에 상승 부 ‘꿈틀’



10월 달러-원 환율 하락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달러 강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소수 주장들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양국의 갈등이 정치·경제 영역을 넘어 물리적 충돌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다.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할 수밖에 없어, 당위성만으로는 당장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도 한다.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유가의 급등 흐름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를 초래할 확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A 외국계 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4일 “남중국 물리적 충돌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롱 포지션을 잡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분야로만 갈등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 해군 미사일 장착 구축함 디케이더함이 난사군도의 게이본과 존슨 암초의 12해리 내 해역을 항해하자 중국 군함이 41m까지 접근해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다.

이 외환딜러는 특히 국제 유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80달러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76달러를 넘고

있다.

그는 “올해 말 자산매입을 끝내고 긴축으로 돌아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물가 상승에 따라 통화정책 누앙스를 더 강하게 한다면, 금융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중국 A주의 비중을 늘리는 문제에 더해, 4분기 해외 채권자금의 포트폴리오 조정 동향에도 관심을 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후반 증공업체 네고 물량에 상단이 눌린 상황에서 1,110원도 하회했는데, 절대 레벨이 낮다고 봐야 한다”며 “1,140원을 웃돌 립이 있다”고 덧붙였다.

B 은행의 딜러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가지면 확실히 환율이 따라간다”며 “최근에 역외에서는 숏 플레이를 했다기보다 롱 포지션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 딜러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달러 약세가 강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그런데 국내 수출이 둔화하고 지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달러-원이 더 밀리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달러 흐름만 따라서 달러-원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며 “달러-원 환율이 추가로 밀리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 시중은행 딜러는 “네고가 많은 계절적 특성과 환율보고서 이슈에 달러-원이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위안화가 약세 압력을 꾸준히 받지만 6.9위안 아래에 머물고 있는데, 관심을 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딜러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문제가 리스크 오프(위험자산 회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D 은행 딜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달러가 꾸준히 강세로 갔다가, 국제 금리가 뛰면서 많이 올랐다”며 “금리가 신흥국 불안까지 연결되면 강한 상승재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 “세계 1위 섬유기업 위상에 역량 집중” 300조원 규모 中 의류시장 공략 나서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세계 섬유 시장 1위 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9월 27일부터 3일동안 글로벌 21개 고객사와 함께 상하이(Shanghai, 上海) 국가회의전람센터(National Center for Exhibition and Convention)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섬유 전시회 ‘인터텍스타일 상하이(Intertextile Shanghai) 2018’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조 회장은 중국 의류시장 이너웨어, 스포츠의류, 캐주얼의류 각 부문에서 1, 2위를 달리는 브랜드 마니폼(Maniform), 안타(Anta), 이션(Yishion)를 만나 고객과의 동



▲ 조현준 효성 회장이 글로벌 고객사 부스를 찾아 섬유시장 트렌드를 점검했다.(사진=효성)

반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글로벌 1위 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

술개발과 품질혁신, 맞춤 마케팅 활동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매년 5% 이상 성장하고 있는 연 300조원 규모의 중국 의류시장 공략을 강화해 글로벌 1위 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의류산업 시장은 약 1조 7970억위안(2016년 말 기준, 유로모니터, 한화 약 300조원) 규모로 연 평균 5% 이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중국 섬유업체 야타이, 베트남 직물염색업체 흥옌 등 21개 글로벌 고객사와 동반 참가해 고객사의 영업활동과 상담을 지원했다. 28일 저녁에는 고객초청 만찬행사를 마련하고 전세계 섬유업체 기업들의 교류도 도모했다.

조 회장은 올해 2월 응우옌쑤언 폭 베트남 총리를 만나 사업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스판덱스 공장 건립 관련 계획을 밝혔다. 8월에는 위안자진 중국 저장성(Zhejiang, 浙江省) 성장을 만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이번 전시회까지 직접 참석하는 등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활발한 글로벌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레쉬 오더

프레쉬오더 생산
스타일당 3~4개 컬러 1만장 이상
컨테이너 베이스
Mens/Ladies/Girls/Boys

캔슬오더/STOCK: 대량수량매입

+62 858 1369 4992
6shg10@gmail.com

PT SHINHAN GLOBAL INDONESIA

kakaoVX

up VISION SCREEN GOLF™

스포츠와 IT기술의 결합을 통한 건강하고 재미있는 가상 체험

Virtual Experience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 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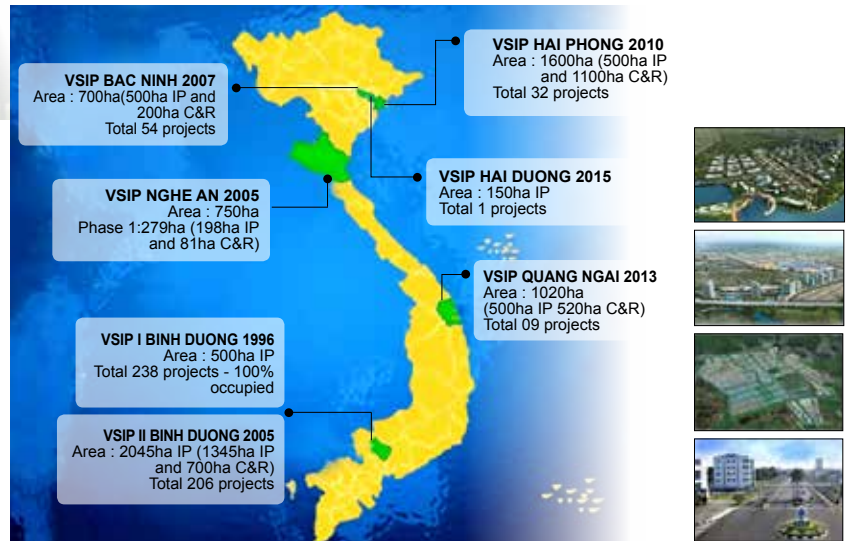
탁월한 선택, 후회없는 결정 Kendal / Park By The Bay



구분	토지면적	인구	1년 졸업생	GDP성장률	주요인프라
스마랑지역	39,800Km ²	3백3십만명	150,000명	6%	탄중항구, 스마랑 국제공항

산업단지 문의 : 박병현 팀장 (문의메일 : Park.byunghyun@sembcorp.com)
한국 : (82)010-9081-0424 / 베트남 : (84)012-7828-7293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구분	VSIP박닌	VSIP하이퐁	VSIP응에안	VSIP광나이	VSIP빈중
토지가격	US \$70	US \$95	US \$38	US \$38	US \$70
공단특색	삼성, LG 1사간거리내	항공도시 (북부최대항)	인력 풍부 (3백3십만명)	두산중공업	외국계최대 투자지역
추천업종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자동차부품	섬유, 신발 (노동집약)	섬유, 신발 중공업	전자/전자 식음료, 제약
최저임금	3급지	1급지	4급지	3급지	1급지
개발규모	150ha	1,600ha	750ha	1,120ha	2,500ha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판대리점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함께 한 18년!!!

중부자와 서비스지점 오픈 !!!



NH 시리즈(피스톤 콤프레셔)
국내 최대 판매, 유일 수출
피스톤 콤프레셔 (1~20마력)



**RCH 시리즈
(소형스크류 콤프레셔)**
설치면적 최소화, 경량화, 정숙화 실현
(5~20 마력)



**AD-HT 시리즈
(일체형 드라이어)**
에프터 쿨러, 에어필터, 에어 드라이어
일체형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입구온도 80°C 설계로 더운 동남아
지역에 최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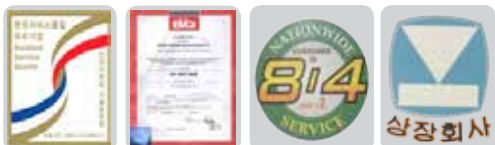
GRH 시리즈 (오일 인젝션 콤프레셔)
스크류 : 독일(GHH-RANDSA)
세퍼레이터 : 일본



AL, CDH 시리즈 (오일프리 콤프레셔)
완벽한 오일 차단, 최장의 운전시간 보장, 최고의 오일프리 스크류 사용
AL 시리즈 : Kobelco(일본) CDH 시리즈 : GHH-RAND(독일)



매월 정기점검 서비스
국내 구입가 보다 저렴한 가격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독일 GHH RAND 스크류사용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트랜스미디어, 한국 SM엔터와 MOU 체결

플랫폼관리 · 시각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사업 본격 추진



인도네시아 복합 기업 짜이를 판중(Chairul Tanjung, 이하 CT 그룹) 산하의 엔터테인먼트 법인 트랜스 미디어 꼬르보라(PT Trans Media Corpora, 이하 TMC)는 지난 8일 한국의 대형 연예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와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합작 회사를 통해 영상 콘텐츠와 이벤트 제작, 인재 육성 등을 진행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구축한 브랜드 인지도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략적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열풍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도 맥락을 함께 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및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등을 통해 플랫폼 관리 · 시각 콘텐츠 제작 · 프로이벤트 제작 및 프로모션 · 머천다이징 및 스트리밍 광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CT 그룹에 따르면, 합작 회사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며 출자액과 출자 비율은 밝히지 않

았다. 회사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협의하겠다”며 3개월 이내에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자하는 생각을 나타냈다. 양사는 서울과 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인 동시 회의를 통해 공동 벤처 기업을 설립할 목표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T 그룹은 인도네시아 최대 기업 중 하나로, 트랜스 TV · 트랜스 미디어 등을 소유하고 있다. 트랜스 TV는 지난 2001년 12월에 설립된 방송국으로, 뉴스 · 영화 · 드라마 · 버라이어티 쇼 · 퀴즈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트랜스 미디어는 트랜스 TV에 소속돼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한편, CT 그룹은 인도네시아 최대 기업 중 하나로, 트랜스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K-MOVE 프로그램 소개

1. K-MOVE?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 KOTR자카르타 K-MOVE 센터?

KOTRA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 하고,우리 구인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을 돕기위해 KOTR자카르타 무역관에 K-MOVE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지원 프로그램?

- (1) 해외취업장려금
 - 1) 지원대상자: 만34세이

하해외취업성공자

- 2) 취업인정기준: 취업비자, 단순 노동직 제외,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 3) 지원금액 : 최대 800만원 (1차3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인정요건 등 세부내용은 월드잡 회원가입후 공고내용확인 (<https://www.worldjob.or.kr/ovsea/sbsd.do?menuId=1000000041>)

- (2) 우리기업 채용 지원
 - 1) 자카르타 경제신문, 인도웹 등구인 광고비 지원(최대 90%)
 - 2) 자카르타 K-MOVE 센터등록 인재풀 소개
 - 3) 기업소개 자료 제작 및 기업 홍보 지원
 - 4) 채용박람회참가비 지원 등

Vol. 3 | 2018. 9

GT Korea 2018

2018 국제봉제기계·섬유산업전시회

Korea International Garment Machinery and Textile Industry Fair 2018

2018. 11. 14(Wed) - 16(Fri), KINTEX

Why GT Korea 2018?

GT Korea 2018은 지난 2005년 열렸던 SIMEX(서울국제봉제기기전시회)의 맥을 이어 13년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봉제기계, 섬유산업 전문 전시회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물론,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봉제 섬유 산업의 핵심 국가 기업과 바이어들도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유수의 해외 바이어 초청으로 전시업체는 해외 마케팅 효과를 국내에서 누릴 수 있으며, 스마트 봉제/섬유, 산업용 봉제/섬유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시장에서 리딩(Leading)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관람객은 빠르게 발전하는 관련 기술과 제품 정보를 쉽게 접하고 생산자 및 유통업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반가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 시 개 요

명 칭	2018 국제봉제기계 · 섬유산업전시회 (GT Korea 2018)
	Korea International Garment Machinery and Textile Industry Fair 2018
기 간	2018. 11. 14(수)~16(금), 3일간
장 소	경기도 일산 KINTEX, Hall 9
주 최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주 관	(주)서울메세인터내셔널, 월간 봉제기술, 제스미디어
전시 품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text-align: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4a4a8a; color: white; padding: 5px;">봉제기계 및 부품류</div> <div style="background-color: #4a4a8a; color: white; padding: 5px;">섬유기계 및 부품류</div> <div style="background-color: #4a4a8a; color: white; padding: 5px;">직물</div> <div style="background-color: #4a4a8a; color: white; padding: 5px;">산업용 섬유 및 부직포</div> </div>

구인 · 구직, KOTRA (K-MOVE 센터)가 도와드립니다.

기업

구직자

구인등록

구인 · 구직 등록 및 매칭

구직 등록

지원 및 혜택

구인광고 지원 :
신문-온라인 광고비
최대 90% 혜택

구직자 취업 후
정착지원금(800만원)지급
(만 34세 이하, 첫 취업 시 1년간 나누어 지급)

자세한 내용 문의 : KOTRA (K-MOVE 센터) 이은정 실장
(08111 350 444, 카톡 ID: ejleedoowang19, kotrajakarta2018@gmail.com)

여성 진스 시장 9% ↑ 애슬레저 같은 '편안함'



애슬레저 룩을 지향하는 트렌드가 늘어나고 지속되면서 뒷전으로 밀리는 듯했던 데님 시장이 특히 여성 의류를 중심으로 되살아나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NPD 그룹에 따르면 2018년 7월 종료된 1년 기간 동안 미국의 여성 진스(Women's Jeans) 시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총 9%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액티브웨어 및 애슬레저 패션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이라는 요소를 매우 선호하는 관계로 이를 데님 의류에 도입한 것이 성장세의 원인이 됐다고 NPD는 분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전체 진스

마켓은 한해 전에 비해 5% 성장했다.

여성 진스 아이템 중 지난 수년간 인기를 끌었던 스키니 진스가 해당 기간 다시 가장 많이 판매된 종목이 됐다. 한해 전에 비해 6%의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전체 여성 진스 판매 중 40%를 차지했다.

스키니 진스 중에서는 스트레칭성과 편안함을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레깅스와 데님을 합쳐놓은 제깅스의 느낌보다는 데님의 느낌이 훨씬 강한 신소재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또한 하이웨스트 스트레이트 라인의 이른바 '맘진스'와 크롭 플레어 진스, 울트라 커프 진스, 데님 스웨트팬츠가 십대와 젊은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였다고 한다.

청바지 제품은 특히 핏감이 중요시 되는 품목이다. 이 때문에 여섯 벌 중 단 한 벌의 비율로 여성 진스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 반적으로 특정 브랜드와 스타일을 잘 알 때만 온라인 상에서 혹은 리테일러에서 입어보지 않고 진스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株式会社 三湖ボイラー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yler.com

자카르타 : 유성열 Hp : 0812 1902 2247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6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PT. HANSHIN AIR COMPANY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mm x 25mm
3. 35mm Spandek
920mm x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x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x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82mm x 35mm x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바구스 투어

인도네시아 비자대행
BAGUS/ 조은여행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한 주말 비자여행!!!
이제 바구스투어에서 시행합니다.

싱가포르 비자 여행

- 공항 픽업 서비스
- 리버보트
- 점심
- 공항 센딩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비자여행

일요일도 비자 가능합니다

평일 12시 전 여권 수령가능
2~3시 인니 귀인 가능

손님이 원하실 경우
호스텔 무료 1박 서비스

Office : (+65) 6224 4330
HP : (+65) 9060 2449, (+65) 9821 3672
카톡 ID : 소장 김경수 bagusvisatour
Address : Heritage hostel 1F 293 Southbridge Road S'pore 058837
E-Mail : bagustour2015@gmail.com

[마이더스] 신흥국 외환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미국이 긴축을 시작할 때 찾아오는 위험 한국의 투자자에게 던져주는 시사점

터키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을 필두로 신흥국 위기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6월 말 이후 이들 국가의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환위기의 조짐마저 나타난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터키도 구제금융 없이는 궁극적으로 위기에서 탈출하기 힘들어 보인다.

9월 위기론, 10월 대란설 등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지만 이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신흥국 위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돈을 줄을 죄는 긴축을 할 때면 취약한 신흥국들 중 일부에서 늘 탈이 났다.

기축 통화인 달러는 어떤 식으로든 글로벌 교역에 노출돼 있는 모든 나라에 필요하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며 달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금융 완화기에는 달러를 구하기가 쉬워진다. 미국에서 풀린 유동성이 다른 국가에 차입 형태로 유입되거나 주식과 채권을 매입하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 긴축을 시작할 때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미국 금리 상승 국면에서 나타나는 달러 강세는 달러 표시 채무를 진 국가들의 외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때 경상수지 적자국들이 위기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 경상수지는 자신의 힘으로 교역에 필요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본적 능력에 다름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능력은 없는데, 미국의 금융 완화 국면에서 풀린 유동성의 유입으로 달러를 확보했던 국가는 미국이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국면에서 외환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달러·유로 찍어내지 못하는 국가의 외환위기

최근 자국 통화 약세가 가팔라진 터키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모두 경상수지 적자국이다.

반면, 유로와 파운드, 엔 등 준기축통화를 보유한 선진국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 통화는 미국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글로벌 교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얼마든지 세계에서 수용되는 통화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외지급 능력 상실로 표현되는 외환위기에 노출될 일이 없다.

외환위기를 겪는 나라는 달러나 유로 등을 스스로 찍어낼 수 없는 국가다. 기축통화국과 준기축통화국들은 자국 화폐의 권위에서 비롯되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가진 셈이다.

최초의 신흥국 위기는 1980년대 초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했다. 멕시코와 브라질 등이 외화 채무를 갚지 못해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외환위기는 늘 대규모 달러 유동성이 유

입된 직후 발생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엄청난 규모의 달러 자금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로 몰려들었다.

당시 라틴아메리카로 유입된 달러의 원천은 '오일 머니'

당시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성급한 개방이었다. 특히 자본시장의 빚장을 너무 성급히 풀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달러 유입이 쉬워졌지만 이는 이후 미

1997~98년 한국의 IMF 외환 위기 국면도 우리에게 미증유의 재난이었지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당시 미국은 IT(정보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호황을 구가하고



▲ 세계 · 신흥국 경제위기(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 · 일러스트

다. 유가 급등으로 중동 산유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달러를 벌어들였다. 산유국 달러는 미국과 유럽 은행들에 예금 형태로 돌아왔고, 이들 은행은 갑자기 늘어난 유동성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했다.

구미권 은행들은 신흥국에 대한 대출을 늘림으로써 활로를 찾았다. 민간 차관으로 포장된 뭉치돈이 신흥국으로 몰려들었다. 한국도 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의 수혜를 받았지만 대체로 미국계 은행의 텃밭이었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로 달러가 붓물 터지듯 흘러들어갔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1970년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폴 볼커가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있던 1980년에 미국의 정책금리는 20%까지 치솟았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미국의 높은 금리를 반영해 나타난 강달러는 신흥국을 강타했다. 자국 통화 대비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갚아야 할 실질 상황 부담이 늘어난다.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외환위기는 결국 채무를 일정 정도 탕감해준 1989년 브래디플랜 실시 후에야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었다.

1990년대에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단골손님이었지만 건실한 경제로 명성이 높았던 동아시아 국가들도 탈이 났다. 한국도 이 파고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우리에게도 아직 IMF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

국이 달러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국면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경로를 걸으면서 개방에 뒤이은 외환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신흥국 위기, 글로벌 전반에 확대되진 않아

최근의 외환위기는 양적완화로 상징되는 서구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돈 풀기 정책의 산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서구 중앙은행들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살포했다. 제로 금리 정책도 모자라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대미문의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때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나 대출의 형태로 신흥국에 흘러들어왔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신흥국은 자국에 들어온 달러로 흥청망청할 수 있었다. 문제는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면 서부터다.

미국은 2015년 12월부터 정책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시작했다. 신흥국의 차입 비용은 늘어났고, 달러의 강세 반전은 달러 표시 부채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취약한 신흥국들의 문제가 일단 터져버린 상황에서 이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관심사다. 신흥국 위기가 글로벌 전반의 리스크로 파생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흥국 위기가 글로벌 전반의 위기로 확산된 경우는 없었다.

있었다.

요즘 문제가 된 터키만 해도 외환위기의 단골손님이다. 이 나라는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외환위기를 맞는다.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에 다소의 포퓰리즘이 가미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돼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터키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파장이 글로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터키와 아르헨티나 등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0억~1천억 달러 미만의 구제금융으로 위기를 봉합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에서 파생됐던 부실 규모가 1조4천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흥국 부실의 규모가 세계 경제를 흔들 정도는 아니란 뜻이다. 유일한 걱정은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부실이 신흥국 내에서 도미노처럼 번져가는 일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국가들이 위기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콜롬비아와 파키스탄 등은 언제라도 외환위기가 가시화될 수 있는 국가들이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중에서 대외부채 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은 경상수지 적자를 많이 줄였고, 성장률도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터키보다 더 큰 규모의 신흥국으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를 넘고, 외환보유액도 4천억 달러를 넘는

이미 금융시장의 반응도 차별화되고 있다. 국가부도 확률로 불리기도 하는 'CDS 프리미엄'을 보면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은 치솟는 반면, 브라질은 상승폭이 적고, 한국과 중국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은 하향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들, 신흥국 채권의 속성 이해해야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신흥국 위기가 글로벌 리스크로 전이되거나 한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있다. 최근 한국의 금리가 낮고, 주식마저 성과가 부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욕구를 중국·베트남 증시, 미국 나스닥 기술주, 브라질 채권 투자 등을 통해 발현하려는 것이다. 투자 대상을 해외로 다변화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해외자산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깊지 않다는 근본적 한계는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는 다소의 오해도 존재한다. 고금리에 대한 기대로 자금이 쏠린 신흥국 채권이 대표적이다.

채권이 갖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어떤 경우에도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다.

그렇지만 신흥국 채권에 이런 속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해외투자에는 기본적으로 통화가치의 변동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터키 채권도 마찬가지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두 자리대지만 리라화 가치가 폭락해 높은 금리도 의미가 없어졌다.

브라질과 터키의 국채는 채권보다 주식의 속성을 가졌다고 봐야 한다. 환율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 변동성만 보더라도 신흥국 국채는 채권보다 주식에 더 가깝다.

특히 한국에서 판매된 신흥국 고금리 국채의 경우, 대부분이 경상수지 적자국에서 발행됐다. 경상수지 적자국의 통화 가치는 미국의 긴축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긴장이 발생할 때 급락한다.

10% 이상의 기대수익을 갖고 투자했다면 당연히 그에 수반되는 리스크도 채권보다 주식에 가까울 것이다. 해외자산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더라도 기대수익은 위험에 상응한다는 상식이 관철되는 선에서 투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글: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연합뉴스]